

Vol.
22
소식지 + 2019.9.30

CONTENTS

01 이슈공감

-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신우석

02 연구소 소식

03 주요 수행연구 소개

01 이슈공감

충남 해양 대표 보호종 선정 및 보호사업 추진의 필요성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신우석(swooseok77@cni.re.kr)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인간 활동과 도시화,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그 주변 **해양생태계 및 기능(서비스)**은 **지속적으로 쇠퇴/노화**되고 있다. 특히 매립 및 자연해안선 손실은 하구·만 등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를 손상시켜, 해양생태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인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난 10년간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등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설립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19개소), 해양보호생물 34종 지정, 유해해양생물 퇴치 등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해양 생태계 중 **해양보호생물** 보호 정책은 현재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80종을 보호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과 그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다. 하지만 해양보호생물의 증식·복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체군 및 서식 상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탑-다운(Top-Down) 방식과 지역해양환경 실정을 반영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충남 해양 대표 보호종들을 선정**하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미처 중앙정부에서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보완해 줄 필요성이 크다. 또한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 야생 생물 보호종**” 정책은 주로 육상 생태계에 한정되어 있어 충남 전체의 생태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육상-해양을 연결하는 자연 생태공간인 충남 생태축**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도 **충남 대표 해양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충남 해양 대표 보호생물 과학적·제도적 관리 기반 강화

- 보전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정기적 생산
- 보호생물 지정 관리 제도 생산



충남 해양 대표 보호생물 서식지 관리 및 개체수 회복

- 보호생물 서식지·산란지 보호 및 복원 추진
- 보호생물 증식·복원체계 확립으로 개체수 회복



충남 해양 대표 보호생물 관리 강화

- 불법 포획·채취,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구조 치료 및 서식지와 보전기관 운영 확대
- 보호종 자율적 관리체계 및 중앙-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01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응역량강화 세미나(8월 21일)



8월 21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도내 미세먼지 관련 담당자의 업무 역량강화와 정보 공유를 위해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김종범 책임연구원(충청남도의 시·군별 미세먼지 발생현황 및 시사점)과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 배귀남 단장(정부 미세먼지 프로젝트 추진현황)의 발제와 시·군별 현안문제와 차년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내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국가차원의 정책동향 파악과 효율적 정보공유, 시·군 담당자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충남의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02

해양환경 유관기관 합동 실무 워크숍(9월 3일~4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지난 9월 3일~4일 충청남도의 각종 해양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노하우 공유와 신규사업 발굴을 상호 토의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워크숍에서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추진현황과 신규 사업 대상지 검토,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해양쓰레기 관리와 해양환경교육의 보완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특히, 해양쓰레기 관리 분야에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윤종주 책임연구원이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광역 전(前)처리시설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를 통해 해양쓰레기 광역 전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및 주요 추진방향에 대한 많은 의견을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향후 해양환경 및 정책에 관한 도 및 시·군간의 업무공유를 통해 충청남도의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정책연구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3

제5회 홍성군 청소년 진로박람회(9월 6일)



지난 9월 6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홍주성 일원에서 진행 된 “2019 제5회 홍성군 청소년 진로박람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본 박람회는 홍성군 내 중학교 1학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연계 진로개발 역량 함양과 진로설계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진행된 행사로 본 연구소에서는 진로체험관에서 ‘기후변화! 위기와 기회’란 주제로 연구원 소개와 기후변화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흥미유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관련 체험교구(태양광 풍력 발전기, 지구온난화 팝업북 만들기 등)를 제공하고 연구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진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당일 홍보부스를 방문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눈높이에 맞춘 정보전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04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9월 25일~27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지난 9월 25일~27일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9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충청남도 전시관을 기획하고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박람회에는 전국 17개의 시·도관이 참여해 지자체별 혁신적인 균형발전정책과 우수사례를 홍보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함께하는 바다 충남의 천수만’이라는 주제로 천수만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 먹거리·볼거리, 혁신적인 주요 정책을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시물과 이벤트, 홍보를 통해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의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정책연구를 통해 한층 새로워진 충청남도의 해양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 주요연구

연구과제명	연구책임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	윤 종 주
2019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행사 운영	윤 종 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연구	이 상 신
대산공단지역 대기환경영향 조사	이 상 신
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역 과거 환경영향 기록복원 기초연구	이 상 신 신 우 석
금강수계 제4단계 세종특별자치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연구 용역	김 영 일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김 홍 수
충청남도 4대수계 주요하천 모니터링	최 정 호

• 연구소개 / 대산공단지역 대기환경영향 조사

서산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울산,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악취와 다양한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2016년 미항공우주국(NASA)과 국내 연구진이 공동 수행한 연구에서 '이산화질소 농도가 세계에서 가장 급격히 심해진 도시'로 공표한 이후 주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충청남도 자체 연구결과에서도 벤젠이 환경기준을 주기적으로 초과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사)한국대기환경학회와 함께 2017년 10월부터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지역 **대기환경조사**와 **모델링을 통한 대기영향지역 분석,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고, 2019년 6월에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고성능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 VOCs 농도를 측정하는 등 **도민 친화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9월 19일에 진행된 주민공청회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총 **14개의 개선방안 및 정책을 제시**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10월말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향후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서산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민·관·사의 유기적인 노력**과 **세부 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죽1리 현장 VOCs측정과 2차 중간보고회 모습]

